

## 동아시아의 이주 근로자와 교회

이우성 (기학연 실행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 1990년대 동아시아의 이주 근로자(migrant worker)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국제적 이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민의 축은 유럽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1의 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지역의 이민의 제2의 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이민의 제3의 축으로 부상함으로써 전세계의 모든 지역의 인력의 이동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민의 시대적인 중요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된 것은 선진국가들과 일부 개발도상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 추세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선진국가들과 저개발국가간의 소득격차, 경제적 부의 격차가 결코 축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가들이 대부분 노동인력의 고령화 현상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생산인력의 부족 현상을 겪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저개발국가가 겪는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빈곤의 경제적 요인이 국제적 인력이동을 초래하는 Push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선진국가들이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경제적 현상이 국제적 인력이동을 초래하는 Pull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인해 역내 국제이동이 용이하다는 점과 더불어 일본을 비롯한 후발 산업화국가들이 노동력 유입국으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이민의 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호주, 대만, 홍콩 등의 국가가 선교적으로 미전도종족과 비기독교 인구가 많은 10/40 windows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인력을 유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기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 인력의 규모에 대한 추산은 이들 국가들에서 법집행력과 행정력이 낮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서의 외국인 인력의 규모(stock 차원에서의 현재 인원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에 외국인 인력규모가 2-3배 가까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e, 2007). 이들 국가 가운데 특별히 일본, 한국, 대만, 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인력들 가운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중이 40-80, 90%까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어,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아시아 국가들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외국인 인력규모가 5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홍콩과 대만과 같은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구규모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전체 인구규모에 비하여는 아직까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인력규모를 산출한 Hugo(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비슷하게 동아시아의 외국인 인력 순유입국가들이 대부분 20만명(홍콩)에서 87만명(일본), 140만(말레이시아), 160만명(태국) 정도의 외국인 인력규모가 각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1인당 소득규모가 낮은 저소득 국가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의 국가에서는 외국인 인력규모가 10만명 미만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주요 인력 순유입국가들은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홍콩의 7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Table 1. 동아시아 국가별 (송출/유입) 외국인 인력규모(stock)

Source/destination	Year	Stock (number)	Main destinations
<b>Source country:</b>			
China	2004	530 000	Middle East, Asia Pacific, Africa
Japan	2003	61 000	Hong Kong
South Korea	2002	632 000	Japan
Cambodia	1999	200 000	Malaysia, Thailand
Indonesia	2001	2 000 000	Middle East, Malaysia, Taiwan, Singapore, South Korea
Laos	2004	173 000	Thailand
Malaysia	1995	250 000	Japan, Taiwan
Myanmar	2001	1 100 000	Thailand
Philippines	2005	4 750 000	Middle East, Malaysia, Thailand, South Korea, Hong Kong, Taiwan
Thailand	2002	340 000	Middle East, Taiwan, Myanmar, Singapore, Brunei, Malaysia
Vietnam	2004	340 000	South Korea, Japan, Malaysia, Taiwan
<b>Destination country:</b>			
China	2003	90 000	
Japan	2004	870 000	
Hong Kong	2003	216 863	
South Korea	2004	423 597	
Taiwan	2003	600 177	
Brunei	1999	91 800	
Indonesia	2004	91 736	
Malaysia	2004	1 359 500	
Philippines	2003	9 168	
Singapore	2004	580 000	
Thailand	2004	1 623 776	
Vietnam	2001	30 000	

Source: Hugo (2005).

Chia(2006) "Labor Mobility and East Asian Integration",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pp349-367

다른 한편으로 인력 송출국가들에서 해외로 송출되고 있는 인력규모와 주요 송출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홍콩, 대만의 산업화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만명 이상의 인력을 외국으로 송출하고 있다. 한국은 60만명 이상의 인력을 외국으로 송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본지역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내인력의 송출지역이 다양화되어 있지만 주로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의 산업화 국가들과 더불어서 인접지역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국내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경우 중동지역으로의 인력송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국가별로 국제인력이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경우 국제인력이동에 있어서 외국인 인력 유입이 주요 형태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제인력이동에 있어서 인력의 유입과 송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유입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베트남 등은 외국인 인력 송출이 주요 국제인력이동 형태이면서 그 규모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캄보디아, 라오스는 인력송출이 주를 이루지만 그 규모는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 II. 국가별 종교 현황과 교회에의 함의

동아시아 지역 역내에서의 국제적인 인력이동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의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동아시아 역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히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아닌 한국과 일본에서의 외국인 인력의 증대는 향후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보다 큰 문화적 충격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기독교적,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국제적인 인력의 이동은 단순한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해 주고 있다.

국제 이주자의 이동현황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종교적 현황을 동시에 살펴본다면 놀랍게도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경우 모두 종교적 자유와 복음전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들의 대부분은 교회가 복음전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과 호주의 개신교 인구는 15%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인력유입국가들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역시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63%-7.5%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인력송출 국가들의 많은 국가들은 복음전파가 제한적인 지역들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독교 인구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이슬람 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복음전파가 필요한 10/40 windows 내의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인력송출국가들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모두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으로 핍박하거나 복음전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이다. 여기에 몽골국가의 경우에는 최근 개신교의 복음전파가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개신교 인구비율이 0.56%에 불과한 나라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송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은 독특하게도 이슬람 종교가 다수이고 복음전파의 자유가 제한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이들 국가들에서는 소수민족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존재하며 개신교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4.21%(말레이시아), 8.63%(인도네시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종교적인 성향이 뚜렷이 차별화되어 있는데 최근의 성향이 국내에서의 지역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지역 이주에 따른 복음전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인력송출과 인력유입이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면서 비록 불교국가이지만 종교의 자유와 복음전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별히 미얀마를 비롯한 인근 인도차이나 반도의 복음이 제한적인 국가들로부터의 이주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복음전파의 중요한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로의 국제 이주자의 경우에는 한국과 호주의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인력송출국가의 엘리트들이 상당수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호주의 대학이 우수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이들 국가들이 경제적 혹은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들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다른 국제 이주자 흐름과 구별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입되는 엘리트 유학생들의 경우 복음전파의 전문인 사역자로 육성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별히 한국과 호주의 유학생 사역에는 전문 사역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호주가 아시아에서 이러한 전문 사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의 역량이 충분한 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국제 이민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일하게 한국과 대만에서 결혼 이주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들의 이주자의 특성은 주로 단기 이주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만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가 될 정도로 상당 수의 결혼이민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탄생한 2세들의 경우 가정에서부터 다문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문화에 익숙한 국제결혼 2세들이 선교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들 결혼 이주자에 대한 선교와 복음전파에 있어서는 이주결혼

2세들에 대한 전도와 양육, 전문 선교 사역자로의 양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 이주자의 흐름을 종교적 상황과 연결시켜 분석하여 보면 이와 같이 1)복음전파가 제한적인 국가들이나 2) 개신교의 비율이 매우 적은 국가들로부터 복음전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들로 이주자의 물결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복음전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교회가 이주자들에 대한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복음전파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선교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동아시아의 선진국가들에게로 복음전파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거나 교회가 없어 복음을 듣기 어려운 국가들의 사람들이 이주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라는 형태 등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선진국가들의 고령화라는 인구적 추세와 맞물려 필연적으로 이들 이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자국내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떠나 보다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환경에서 이들은 자국내에 있을 때의 종교적, 사회문화적 압력으로부터 일정부분 자유로울 수 있어 복음전파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 III. 기독교 국제 이주자 네트워크의 협력과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국제 이주자 선교를 위한 협력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적인 개신교 인구규모와 교회의 선교역량이 높은 한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과 남아시아의 선교관문지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교회들간의 기독교 국제 이주자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기독교적 복음전파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복음전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가들이며 동시에 수십만명 규모의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이들 외국인 인력 유입국가 교회들간의 이주자 선교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은 유입된 외국인 인력에 대한 복음전파와 양육, 전문사역자의 양성, 재파송 등 이주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선교와 교회설립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협력과 나눔, 배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언어민족간의 복음전파의 연계가 필요하다. 복음으로 세워진 이주자 교회나 본국교회를 통하여 언어민족내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의 결성을 통해 동 언어민족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구체적인 목표는 본국의 복음화라고 할 수 있으며 본국에 있는 선교사와 소수의 본국교회와 더불어 이주자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국의 복음화와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인력송출국가의 선교사와 인력유입국가의 이주자 선교단체간의 네트워크 결성이다. 인력송출국가의 경우 대부분 복음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와 지하교회들이 존재하고 복음전파가 가능하더라도 소수교회만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복음전파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인력유입국가의 이주자 선교단체에서는 이주자들에 대한 복음전파와 양육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단기 이주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였을 때에 본국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회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존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인력송출국가에서의 선교사와 지하교회들이나 소수교회들과 인력유입국가들의 이주자 선교단체들간의 이주자 선교와 본국 복음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와 네트워크를 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이주자의 시대라고 UN이 예측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본국을 떠나 일자리와 미래의 희망을 찾아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다. 복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복음전파가 제한적인 지역의 수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들에게 나아오는 이 상황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이들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묵상하여야 할 것이다.